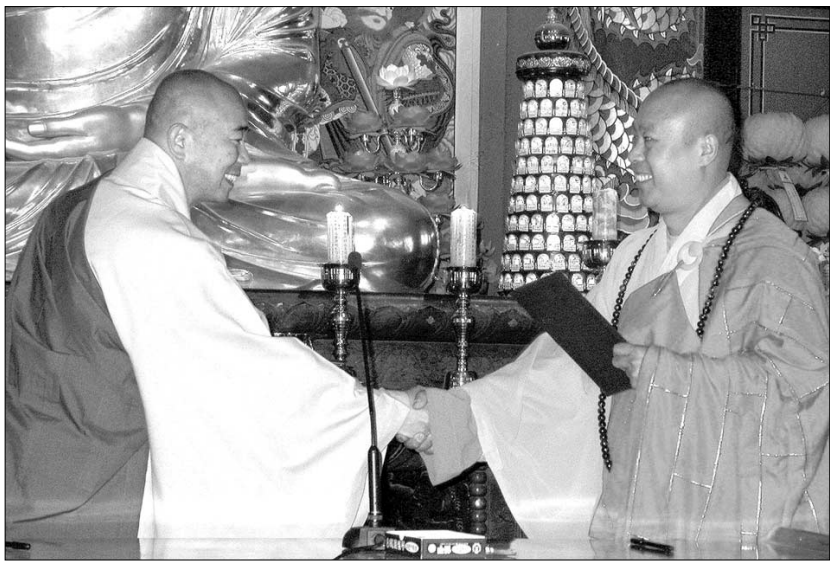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오대산' 손 잡았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왼쪽)이 중국 수상사 주지 능계스님과 자매결연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바뀌고 있다. 조용하던 예전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정념 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하면서 대내외 교류는 물론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월정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오대산과의 자매결연과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 대회'

방문한 중국 산서성(山西省) 오대산 불교협회장 근통(根通) 스님과 오대산 수상사 주지 능계(能戒) 스님, 산서성 부성장(副省長) 송북삼(宋北杉) 등 중국 방문단과 자매결연을 맺는 한편, 오는 6월 24일 중국 오대산을 방문해 불교문화교류 및 수행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교문화교류는 매년 화엄사상과 문수신앙과 관련한 학술 대회 등을 포함한 문화행

사를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행교류는 양국의 스님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인기 정진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오대산과의 자매결연은 문수신앙과 화엄사상을 꽃피운 상원사의 역사를 계승하고 중국 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불교를 적극 알린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월정사는 특히 이번 자매결연이 1400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문수신앙이 서로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양국 교류를 계속해 넓혀나간

**월정사, 中 오대산불교협회와 자매결연
화엄사상·문수신앙 학술대회 등 추진
16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숲길 걷기도**

다는 방침이다.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를 출발해 상원사까지 약 10Km를 걷는 '제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는 월정사와 오대산의 문화유적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단순한 걷기 대회는 아니다. 월정사→전나무숲길(생명의 거리)→반야교→상원사 선재장→오대산장니움의 마당→상

원사(평화)의 기원을 거치는 코스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고, 대회 동참자들은 그 주제에 맞게 생명과 평화, 자비, 자기 수양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전나무숲길(생명의 거리)에서는 묵언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오대산장니움(마당)에서는 전시회 및 바자회를 통해 장애우 돕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상원사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염원하는 기원문을 적어 부처님전에 봉헌한다. 이밖에도 사진전시회, 선원 개방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걷기 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당일 출발 전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일반 1만 원, 대학생 이하 및 단체 5천원)는 전액 장애우를 위해 사용된다. (033)332-6661~5, 홈페이지 www.woljeongsang.org

월정사 연수원장 무구 스님은 "걷기대회나 중국 오대산과의 자매결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역민과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월정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지금, 우리 삶에서...

인양 지장선원

특별한 강좌...포교의 힘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각 스님의 특강을 경청하는 지장선원 신도들.

수도권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면? 안양불교대학의 한 거사는 "망설일 것 없이 지장선원으로 가라"고 말한다. 종교나 종파를 초월해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곳, 깨달음 추구와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장선원이라는 생각에서다.

지장선원을 모태로 인양의 변화가 자리잡은 지장선원은 '지역포교의 산실'로 불린다. 건물 한 층을 얻어 어렵사리 시작한 사찰이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찰도 꾸리기 힘든 불교대학을 수년째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장선원이 불보배급 철저한 준비로 걸림없는 강의의 대명사가 된 것에는 그 유명한 강사진·독특한 수업에 '만원' 이라 할 수

만한 이유가 있다. 이 강사진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초보불자와 교리박사 누구에게라도 걸림없는 강의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8개월동안 이어지는 기초반 강좌에서는 불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상식은 물론, 그 어떤 법회나 의식에서도 여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생활불교를 지도한다. 경전반 강좌 역시 다양한 경전들을 쉽게 풀이하는 가운데 불자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과정을 수료하면 개근상, 공로상 등의 상패를 수여하기도 해, 신심있는 불자들에게 각별한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강좌의 백미는 바로 한달에 한 번씩 마련되는 특강. 선원에서는 자관(가산

불교문화연구원장) 스님, 세민(수안불교대학장) 스님,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스님, 현각(동국대 불교대학장) 스님 등을 초청, 기초반과 경전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준비한다. 지금은 '특별한' 교수진의 수업을 매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참여와 호응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불교방송 진행자이자 텔레비전 김병조·김용립·최영준 씨 등을 초빙해 재미있는 생활불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준비돼있다. 또한 이종길 씨 등의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법률상식 등의 특강도 다른 곳과 구별

되는 지장선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이 강

은 '준비된 교수진'과 '알찬 강의'에 힘입어 5년 동안 1000여명의 학생들이 안양불교대학을 거쳐갔다.

"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을 지도하더라도 참된 불자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주지 현각 스님의 각오를 반영하듯, 학생들의 불보배공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연재해를 겪은 이웃에게 일일이 성금을 전달하고, 불우이웃돕기와 교도소 위문공연 등의 활동 역시 5년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배운 대로 구하기'에 힘쓰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 지장선원 불자들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031)444-5935

강신재 기자

육군 부사관학교 대법당 개원 매년 3000여명 계 받게 될 듯



법회 참석자들이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 개원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국내 최대 하사관 양성기관인 육군 부사관학교에 최대 1200여명의 군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법당이 건립됐다. 전북 여산에 자리한 육군 부사관학교 호국종교사(주지 정념 스님)는 4월24일 대웅전을 중창하고 법당 개원 및 불상 봉안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향림사 조실),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보문종 전 총무원장 혜일 스님 등 중창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스님과 신도, 육군 부사관학교장 송유창 준장 등 학교 관계자,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 군순단장 장성화 법사 등 군법사와 부사관학교 불자생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육법

공양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군복무기간이 짧아지면서 부사관의 수요가 늘어나 이들이 좀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도당을 건립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공부한 생도들이 각 부대에 나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종국사 중창을 기념해 법당앞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종국사는 대웅전 250평, 요사채 50평을 신축했으며 삼존불을 봉안했다.

한편 육군 부사관학교는 매년 1만여명의 하사관후보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새로 건립된 법당에서 해마다 3000여명의 군불자가 수계를 받고 아전에 배치될 전망이다.

종국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들 하사관후보생들은 군에서 최대 30~40년 이상 군복무를 하는 군의 기둥이다"며 "군복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종국사 운영을 위해 천불(千佛)봉안 불사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천불봉안 동참 문의: 017-674-6236)

이준엽 기자

천태종 광주 금광사 전법도량 불사 교육관, 유치원 갖춰 2006년 준공



광주 금광사는 전통사찰 양식의 3층 규모로 건립된다.

금광사는 4월 16일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을 비롯 종단 임원 스님과 지역기관장, 신도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금호동 백석산 금광사 경내에서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법에서 "금광사 법당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귀의하는 이마다 모두 안심입명(安心立命)하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이에 앞서 금광사 주지 설래장 스님은 개식사를 통해 "법당 불사를 통해 인류의 반목과 전쟁이 종식되고 인류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금광사 법당은 연건평 900평에 전통사찰양식 3층 슬라브 건물로 법당, 교육관, 유치원과 기관 사무실이 들어서며 오는 2006년 준공될 예정이다.

무료진단과 공개강좌 개시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한국 전통 기운미래 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물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흥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 동공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스트 공중보건학과 팔상 체질의학 향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자연치유 의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재)
- 자연치유 영양요법은 공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의: 경희대졸, 유니피어 흥체 자연치유학회 전문위원, 컴코리아 흥체 강의 중)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무료강좌
 매주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규봉선생과 소인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
평생 직업! 오후 2시부터는 특강반 모집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사주, 작명, 인상학, 공한, 택일,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 기운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9**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ng.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